

섬김

어느 문제가 있는 수도원에 한 늙은 수도사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늙은 수도사가 왔다는 소문에 젊은 수도사들이 밖으로 우~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백발이 성성한 노수도사를 보고 말했습니다.

“노수도사가 왔구려! 어서 식당에 가서 접시나 닦으시오”

노수도사가 숨 돌릴 여유도 주지 않고 젊은 수도사들이 노수도사에게 말했습니다. 이 수도원에서는 처음 부임한 수도사에게 그런 허드렛일을 시키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노수도사는 머리를 숙이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답하고는 곧장 식당으로 갔습니다. 노수도사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고 한 달, 또 한 달, 그리고 또 한 달을 접시만 닦았습니다. 젊은 수도사들은 말없이 그리고 불평하지 않고 일하는 노수도사를 알잡아 보고는 그에게 열쇠와 천대와 구박을 쉬지 않았습니다.

석 달이 지난 즈음에 수도원 감독자가 이 수도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젊은 수도사들은 책잡힐 일이 있지나 않을까 두려

워하며 감독 앞에서 쩔쩔매고 있었습니 다. 감독은 수도원의 원장이 보이지 않는 것을 알고는 그 수도원의 원장을 찾았습 니다.

“원장님은 어디 가셨는가?” 수도사들이 대답했습니다.

“원장은 아직 부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감독은 고개를 가우뿔거리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 무슨 소린가? 내가 로렌스 수도사를 이 수도원의 원장으로 임명하였고 또 이곳으로 파견한 지 벌써 3개월이나 되었는데?”

이 말을 듣고는 젊은 수도사들이 아연 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노수도사가 원장이란 결론이 나오기 때문이었습니다. 모두 식당으로 달려갔습 니다. 그곳에는 여전히 늙은 수도사가 식기를 닦고 있었습니다. 그 노수도사는 너무나 유명한 브라더 로렌스였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이 수도원은 가장 모범 적인 수도원이 되었습니다. 노수도사는 어떤 명령도 설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런데 그 섬김 앞에서 모두가 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섬김입니다. 섬기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고 섬김을 받는 것이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고방식들이 공동체를 메마르게 만듭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섬겨야 하고 높은 자리에서는 섬겨야 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녀가 부모를 섬기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부모가 자녀를 섬기는 것입니다. 아기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부모는 섬겨야 하고 아기는 섬김을 받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자식을 섬기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연조가 깊어질수록 섬김이 많아져야 합니다. 직분을 받을수록 더욱 섬겨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전보다 섬김이 많아졌다면 그만큼 성장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마태복음 23장 12절)*



내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요가

“자유율법은 마귀를 죽이는 하나님의 율법”

자유율법은 하나님의 율법이고, 곧 마귀를 죽이는 법이다. 자유율법은 마귀를 죽이는 법이고로 마귀인 나를 죽이는 법이 바로 자유율법이다. 나라고 하는 것이 마귀이고로 옛사람인 나를 죽이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자유율법이 완성되는 것이다. 승리제단은 자유율법을 지키는 곳이다. 자유율법을 지켜야 승리제단의 일원이 될 수 있는 것이지, 자유율법을 못지키면 승리제단의 일원이 될 자격이 없다. 자유율법은 바로 마음의 율법이고, 하늘의 율법이고, 마귀를 이기는 법이다. 모든 욕망을 죽여 '나'라는 주체의식을 완전히 제거하는 법이 바로 자유율법이다. 자유율법은 하나님이 마귀를 이기는 법이고, 하나님은 사람 밖의 다른 존재가 아니요, 바로 우리들 사람 속에 계신고로 사람 속의 하나님의 마음이 마귀의 마음을 죽이는 것이 바로 자유율법이다.

아름다운 자세를 위한 스트레칭~
허벅지 근육만큼 중요한 작은 근육 단련하여
건강하고 아름다운 자세를 만들어 보실까요?

몸과 마음을 깨우는 스트레칭 유의사항

- 1. 가벼운 유산소 운동으로 근육이 충분히 이완된 상태에서 스트레칭을 합니다. (부상 방지)
- 2. 바른 자세를 유지하며, 서서히 늘릴 수 있도록 합니다.
- 3. 자연스런 호흡을 하면서 한가지 자세를 20~30초 정도 유지하도록 합니다.
- 4. 반동(바운스)을 주지 말고 천천히 근육을 신전(이완)할 수 있도록 합니다.

- 동작 ① : 몸통 앞부분. (5회)
- 동작 ② : 몸통 뒷부분. (5회)
- 동작 ③ : 옆구리 부분. (양쪽 각각 교대로 3회)
- 동작 ④ : 상, 하체 뒷부분. (5회)*



십승을 깨닫고 따르는 사람은 소원성취하리라

격암유록 新해설
수정판 제41회

賽六五(二) 새옥요

海印役使萬事如意亨通

해인역사만사여의형통

風驅惡疾雲中去 풍구악질운중거

雨洗冤魂海外消 우세원혼해외소

別有天地非人間 별유천지비인간

武陵仙境種桃地 무릉선경종도지

人壽如桂永不衰 인수여계영불쇠

白髮忽然黑首化 백발홀연흑수화

落巖神化 復達生 락차신화 부달생

擇人手苦 不歸虛 택인수고 불귀허

生産之物不逢災 생산지물불봉재

非山非野居住人 비산비야거주인

子孫世萬代榮華 자손세만대영화

獸動物心政과 수동물심정화

弓引聖地無害喪 궁궁성지무해상

聖人教化諄諄 성인교화순순

日德及禽獸天下 일덕및금수천하화

被草木賴及萬邦 피초목뢰급만방

정도령이 임의용지(任意用之)하는 해인은 만사여의(萬事如意)요 만사형통(萬事亨通)이로다. 풍운조화를 마음대로 하는 정도령은 악한 질병을 바람으로 몰아 구름 속으로 보내 없애버리고 원혼은 비에 씻겨 바다 밖으로 보내 소멸시키느니라. 이곳은 세상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닌 신선이 사는 별천지요 무릉도원의 선경(仙境)이로다.

인간의 수명이 계수나무와 같이 영원하니 쇠병사장(衰病死窮)이 없도다. 백발(白髮)이 홀연히 검은 머리로 변화하며 빠진 치아가 하나님의 조화로 다시 생겨나니라. 정도령을 믿고 따르는 사람의 수고는 헛됨이 없으며 생산한 물건들은 재난을 당하는 일이 없느니라.

비산비야의 십승지에서 정도령과 함께 사는 사람은 자손만대에 영화를 누리리라. 짐승 같은 동물의 마음을 가진 자라도 마음을 잘 다스리면 화평하게 되리라. 궁궁의 성산성지는 해(害)를 입거나



상(喪)을 당하는 일이 없느니라. 정도령은 세세하게 거듭 태일러서 친절하게 가르쳐 변화시키니 태양과 같은 밝은 신 덕이 금수(禽獸)들에게까지 미치어 천하를 변화시키느니라. 또한 초목까지도 정도령의 은덕을 입으니 그 밝은 덕이 만방에 미치느니라.

弓乙論 궁을론

弓引不和向東西 궁궁불화향동서
背弓之間出於十勝 배궁지간출어십승
人覺從之所願成就 인각종지소원성취
弓引相和向對坐 궁궁상화향대좌

궁(弓) 궁(弓)이 서로 불화한 것처럼 각기 동쪽과 서쪽을 향하면 즉 두 궁(弓)자가 서로 등진 사이에서 십승(十勝)이 나오게 되니라. 십승을 깨닫고 따르는 사람은 소원성취하리라. 궁궁이 화합한 것처럼 마주보고 앉으면 구부러진 궁(弓)의 사이에서 신궁(神工)을 뜻하는 장인 궁(工)자가 나오느니라. 신궁(神工)은 신묘한 솜씨 즉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이 내포되어 있다. 사람마다 궁궁의 하나님을 깨달아 정성을 다하여 익히면 무문도통(無文道通) 즉 글 없이도 도통하리라.

오른쪽의 을(乙)과 왼쪽의 을(乙)이 서로 다투어 하나는 이기고 다른 하나는 패한 것과 같이 이긴 을(乙)은 세로(縱)로 서고 패한 을(乙)은 가로(橫)로 누운 것을 합쳐보면 십(十)자가 나오는데 사람이 이 이치를 깨달아 지혜를 얻으면 영원히 처자식(妻子息)의 생명을 보전하리라. 좌을(左乙)과 우을(右乙)이 서로 교차하여, 하나는 서고(立) 다른 하나는 누운(臥), 쌍을(雙乙) 사이에서도 십승이 나오는데 사람의 근본 마음과 하늘의 이치를 깨달으면 소원(所願)하여 통하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소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말이다.

四口合體入禮之田 사구합체입례지전
四口之間出於十字 사구지간출어십자
骸垢洗淨沐浴湯海 구세정목욕탕전
五口達交達成之田 오구달교달성지전
五口之間出於十勝 오구지간출어십승
脫却重生變化之田 탈각중생변화지전
精脫其右米盤之圖 정탈기우미반지도
落盤高四乳出於十字 낙반고사우출어십자
先師此覺者得福 선사차은각자득복
一鮮成胎四方連交 일선성태사방연교
四角虛虧出於十字 사각허출어십자
奧妙遠理世人難知 오묘원리세인난지

당신을 영생의 세계로 안내하는 신문

성금계좌 : 우체국 103747-02-134421 예금주 : 이승우

독자님들의 정성어린 성금이 영생의 세계를 앞당깁니다
전국 각지에서 성금을 보내주시는 분께 감사드립니다

박명하 / 고서연구가
010-3912-5963
myunghpark23@naver.com

참진리

지옥 전도 문답 [14]

질문: 지옥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지옥이 어디에 있습니까?

답변: 특별히 어떤 장소에 지옥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가 고통을 당하는 장소가 바로 지옥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으로 화하면 빛으로 화하게 되는데, 그 빛은 타는 빛(불)이 아니고 고통만 주는 불덩어리입니다. 이렇게 온 우주가 빛의 세계로 화합니다. 빛의 세계가 곧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빛으로 하나가 된 세계에서 뜨겁지만 하고 타지 않는 불이 하나님으로 거듭난 의인에게는 상쾌하고 쾌락을 영원무궁토록 누리게 하지만, 마귀와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죄인들에게는 뜨거운 후라이팬 위에 올려진 방아깨비처럼 팔뚝거리면서 차라리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 나올 것 같아 죽으려고 해도 죽지도 못하고 영원무궁토록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옥이 따로 천국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곧 지옥이요 지옥이 곧 천국을 알 수 있습니다.

질문: 그렇다면 지옥과 천국은 앞으로 오는 세상에 건설될 예정이니까 과거에 죽은 사람들이나 현재 이 순간에 죽는 사람들은 지옥에 갈 일도 없고 천국에도 갈 일도 없겠군요?

답변: 앞으로 건설될 지옥과 천국은 빛의 세계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살아가고 있는 죄인의 몸이 (미완성의 지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괴롭고 있고 고통이 있고 병마가 있는 그 자체가 지옥이기 때

문입니다. 그리고 '나'라는 의식이 죄가 되기 때문에, 성경에 "나를 항상 버려라" "옛사람을 벗어 버려라(엡 4:22)"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악이다(딤후 3:2)" 하는 말씀은 '나'라는 것이 악이요, 죄요, 마귀이기 때문에, 항상 버려야 된다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성경 요한복음 3장 5절에는 성령(하나님)으로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질문: 그럼 (미완성의 지옥)이 현재 살아가고 있는 죄인의 몸이라면, (완성의 지옥)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답변: 앞에서 말했듯이 지옥이 따로 없고 천국이 마귀와 죄인에게는 지옥이요, 마귀와 죄인의 지옥이 하나님(성령)으로 거듭난 의인에게는 천국이라고 했듯이, (완성의 천국)이 어떻게, 언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 이는 것이 곧 (완성의 지옥)이 언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아는 것이 됩니다. 이간자 조희성님의 말씀에 따르면 먼저 승리제단에 나오는 성도들이 감모이슬성신 곧 은혜의 빛을 받을만한 자격을 갖추게 되면 마귀의 빛, 태양이 그 빛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구세주의 머리 위에 임합니다. 그러면 구세주 얼굴에서 영원한 빛이 온 세상 만민에게 비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 빛만 받으면 인간 속에 있는 마귀가 전부 전멸되고 인간들이 전부 하나님인 되는데, 그 기간이 6000년에서 7000년의 기간입니다.(2002.01.23. 말씀)*

승리신문 1990.3.3 등록번호 다 - 0029

발행인 **윤봉수** 편집인 **박태선**

본지는 구세주(정도령, 미륵불)께서 말씀하신 사람들이 실제로 죽지않는 원리(영생학)를 누구든지 쉽게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소개하여 질병과 죽음이 없는 개벽된 세상을 만들고 진정한 평화의 세계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발행됩니다.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안곡로 205번길 37 우 14679
홈페이지 www.victor.or.kr

광고 및 구독신청
전화 032) 343-9985
FAX 032) 349-0202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본부제단 032-343-9981~2

- 역곡제단 : (032)343-9981-2
- 수원제단 : (031)236-8465
- 안성제단 : (031)673-4635
- 평택제단 : (010)7516-1591
- 부산제단 : (051)863-6307
- 영도제단 : (010)6692-7582
- 김해제단 : (055)327-2072
- 대구제단 : (010)6530-7909
- 마산제단 : (055)241-1161
- 진주제단 : (055)745-9228
- 진해제단 : (055)544-7464
- 영천제단 : (054)333-7121

- 사천제단 : (055)855-4270
- 순천제단 : (010)3661-9025
- 정읍제단 : (010)8628-2758
- 군산제단 : (063)461-3491
- 대전제단 : (042)522-1560
- 청주제단 : (010)5484-0447
- 충주제단 : (010)9980-5805
- 양평제단 : (010)2945-8254
- 橫濱祭壇 : (045)489-9343
- 神戶祭壇 : (078)862-9522
- 下關祭壇 : (0832)32-1988

- 大阪祭壇 : (06)6451-3914
- Sydney : (006)0415-727-001

원래 사람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다.